

“오월정신으로 다시 이뤄낸 민주시민의 승리”

시민 2500명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심판 지켜봐 8대0 파면 선고에 포옹하며 환호... 기쁨의 눈물

“광주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자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8대0 파면을 위한 결의대회’ 현장.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광장에는 시민 약 2500명 (주최측 추산)이 모여 탄핵 선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고, 저마다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손에 들고 뉴스를 보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시작되길 초조하게 기다렸다.

대형 화면으로 헌재 내부가 비춰지고 헌법재판관 8명이 차례로 입장하자 박수가 쏟아졌다.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대형 화면에 집중했다.

오전 11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선고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하자 시민들은 숨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문 대행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읽어나갈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 대행의 발언을 촬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차근차근 읽어내며 부당했다는 발언이 이어지자 광장의 초조함은 서서히 기대감으로 바뀌어 갔다.

마지막까지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거나, 아예 눈을 질끈 감은 이들도 있었다.

이내 “11시22분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 대행의 멘트가 흘러 나오자 5·18민주광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자리를 박차고 환호하며 12·3 내란사태 이후 광장을 지킨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고, 일부 시민들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광장을 찾은 일가족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생했다”고 서로를 위로했다.

시민들은 전일빌딩24에 설치돼 있던 ‘광주가 왔다 파면이 온다’는 현수막이 내려가고 그 자리에 ‘지켰다 민주주의 고맙다 광주정신’ 문구가 게시되자 광장은 다시 한 번 환호의 도가니로 변했다.

탄핵 선고 당일의 환희는 이날 오후 7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20차 광주시민총회대회 ‘승리보고대회’까지 이어졌다.

대회에는 시민 1500여명이 참가해 ‘민주주의 승

리’를 만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달여 동안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선 광장은 응원봉과 깃발 등 광장의 상징이 된 물품으로 가득 차 축제의 장이 연출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단상에 올라 5·18의 영령과 오월 광주정신 덕분에 우리는 총칼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았다. 캄캄하고 추운 겨울에도 굴하지 않고 버텼다”며 “광주시민을 비롯해 오늘의 승리가 있기까지 광장에서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연거푸 고개를 숙였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일의 모습, 탄핵 선고 당일까지 이어진 탄핵 찬성집회 현장의 모습 등이 영상으로 흘러나오자 시민들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김경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우리는 한강 작가의 물음에 대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했다”며 “시민들이 저마다 손에 응원봉과 피켓을 흔들면서 외친 것은 계엄과 내란의 역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으며 지켜낸 승리다”며 “광주 5·18 정신이 살아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가 이겼다. 우리 모두의 승리다. 이날 승리의 기운을 받아 진정한 민주국가로 한자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발표된 지난 4일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 탄핵 인용을 반기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尹 탄핵, 그 순간-시민·오월·노동단체·법조계

“5·18 승리, 민주주의 승리...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

환영 메시지 쏟아내... 내란 수괴·동조자 처벌 촉구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 각계각층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이들은 이제 갈등 조정과 선동을 멈추고 불안정한 정국과 혼란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고 염원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4일 성명을 통해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광주비상행동은 지난해 ‘12·3비상계엄’부터 5·18민주광장을 지키며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왔다.

이들은 “두려움, 국민을 배신한 공권력에 대한 허무함과 불안, 불면의 밤을 이겨내고 쟁취한 승리다”며 “우리의 승리는 3·1 만세운동의 합성과 4·19, 부마, 5·18, 87년 6월, 박근혜 탄핵 촛불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 오늘의 승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의 불결이 만들어낸 파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승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아반의 정권이 화귀하지 않고, 불법 내란이 불가능한 나라를 위해 내란 관련 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월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헌법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른 반역자, 마침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은 헌법 위에 군림했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으며, 공포와 조작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도발해왔다”며 “검찰 독재, 언론 탄압, 반민주적 국정 운영은 5·18 정신을 조롱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헌법이 살아 있음을 목격했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우리는 전두환 정권과 맞섰던 그날처럼, 다시금 권력의 폭주를 멈춰 세웠다. 이는 5·18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이며, 국민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법조계도 환영의 입장을 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세력에 대한 민주시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승리이다”면서 “광주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 실현, 인권옹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민·노동계도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환호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윤석열이 파

면됐다. 연대와 협력으로 거대 악과 악다구니를 물리쳤다”며 “국민의 성숙한 민주 의식과 다르게 대한민국 헌법은 여전히 40년 전의 낡은 모습으로 잔존해 있다는 것이다. 민주공화제와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힘을 보존해 ‘빛의 혁명’의 성과를 헌법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동총광주본부부는 “앞서서 싸우니 산 자여 따르라,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렸다는 5월 정신의 승리가 이자 혹독한 겨울을 은박담요로 버티며 끈질기게 싸우는 국민의 승리다”고 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동총은 “민주주의를 전진시키고 우리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낡은 87년 헌법을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를 위한 헌법 개정은 광장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탄핵은 정부의 위법과 무능, 독단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다”며 “분열과 갈등을 넘어, 정의와 상식, 안전과 평등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낡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NAVER 광주바로연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지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유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